

메시지 2

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회복에 관한 학개의 선언

성경: 스 5:1, 학 1:1-14, 2:7상

- I.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일—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일—만을 하고 계신다는 사상으로 빛 비춤 받고 완전히 적셔져야 한다—창 28:16-19, 마 16:18, 엡 2:21-22, 계 21:2-3.
- A. 주의 회복은 생명과 건축의 회복이다.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, 건축은 한 단체적인 몸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다—엡 4:18, 16.
- B.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,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—출 25:8.
1. 하나님은 자신의 표현을 위해 이 땅에서 거처—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조성된 거처—를 갖기 원하신다—벧전 2:5, 엡 1:5, 9, 2:20-22.
 2.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,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, 하나님의 확대이며, 이것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—요 14:20, 15:4상, 17:22, 엡 3:17, 19하, 21, 딤후전 3:15-16.
 3. 복음을 전파하고, 성도들을 함양하며,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그분의 건축의 일부이다. 이러한 활동들은 하나님의 주된 일인 건축의 일부이다—마 16:18, 엡 2:21-22, 벧전 2:5.
- C.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분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다.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되어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—출 25:8, 시 73:25-26, 엡 2:1-12.
1. 세상은 하나님의 건축을 대적하고, 하나님의 건축은 세상과 반대된다—요 15:18, 요일 2:17.
 2.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, 세상의 요소가 우리 속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—롬 12:2.
- D.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놓고,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투쟁, 곧 격전이 있다—스 4:1-4, 24, 마 16:18.
1. 원수는 하나님의 거처가 잘 건축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. 그러므로 원수는 건축을 방해하고 훼방하고 좌절시키고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할 것이다.
 2. 모든 공격과 반대와 악한 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되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.
- E. 함께 믿는 이 된 이들과 같이 건축되는 것이 주님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,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하나에 따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요구이다—요 17장.
- F. 신성한 생명에 동참한 이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최고의 미덕이다—빌 3:12, 엡 3:9.
- G. 주님의 갈망에 따라 건축된 교회만이 우리를 왕국 시대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.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하여 건축된 교회가 필요하시다—마 16:18-19, 27-28.
- II. 학개의 선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돌아온 포로들을 다루심에 관한 것이다—학

1:1-14, 2:7상.

- A. 학개의 신언의 중심 사상은 여호와와 그의 집의 건축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변영과 관련되며 복원의 시대에는 메시아와 함께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—학 1:2, 8, 2:6-9, 20-23, 마 19:28, 행 3:20-21.
- B.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은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고, 다음으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몸과 확대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.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예표의 실재이므로 학개의 신언은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—요 2:19-21, 딤편전 3:15.
- C. 학개가 왕의 직분을 대표하는 총독 스킵바벨과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그 두 사람과 백성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다—스 5:1, 학 1:1.
- D. 자기만 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한 돌아온 포로들은 자신의 집만 돌보고 여호와와 그의 집은 돌보지 않았다 (학 1:4). 학개 1장 9절에서 ‘황폐한’이라는 단어는 백성이 자신들의 집을 돌보는 데에만 분주했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1. 학개 1장 6절은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참된 누림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.
 - 2.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회복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다. 우리는 자신의 집을 먼저 돌보든지 아니면 주님의 집을 먼저 돌보든지 한 가지에 절대적이어야 한다—마 6:33, 눅 9:57-62, 빌 2:20-21.
- E.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회복하기 위해, 하나님의 선민은 영 안에서 분발된 후 와서 여호와와 그의 집 안에서 일했다—학 1:14.
- F. 주님의 분부에 반응하여,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, 즉 주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새 신자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주 예수님께 점유되어야 한다—요 21:15-17.
- G. “내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갈망이 이르리니” —학 2:7상.
 - 1. 이것은 만국의 갈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—말 3:1하.
 - a. 비록 만국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한다.
 - b. 만국이 그 실재가 그리스도인 빛, 사랑, 기쁨, 의를 갈망하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2. 만국의 갈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회복되는 데 달려 있다—딤편전 3:15, 뵤전 2:5.